

청소년기 빈곤과 내재화 문제의 종단적 관계*

민원홍** · 이봉주***

초 록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는 정신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후 성인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발달적 문제이다.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환경적 맥락의 영향을 고려한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른 환경적 맥락의 변화에 대한 내재화문제의 변화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대표적인 부정적인 환경적 맥락인 빈곤 요인의 변화에 따른 내재화문제의 발달계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로 서울아동패널연구의 5차년도(중2)에서 8차년도(고2)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 빈곤요인들 중에서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중2시기뿐만 아니라 고2시기에도 빈곤한 청소년들의 경우 두 시기 모두 빈곤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재화 문제의 발달계적에는 청소년기 빈곤 요인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빈곤은 그들의 내재화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초기부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빈곤한 청소년들이 보이는 내재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제어: 청소년기 빈곤, 내재화 문제, 잠재성장모형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NRF-2011-413-B00011), 2014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수연구원, 주저자 및 교신저자, minwonh@nate.com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 론

아동·청소년기의 내재화 문제를 포함하는 정신병리적 문제에 대해 발달적 관점에 기반한 선행 연구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는 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맥락의 영향에 대한 것이다(Gorman-Smith & Tolan, 1998; McLoyd, 1990). 즉,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맥락들이 성장과정에서 겪는 발달정신병리적 문제의 발생과 발달과정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이시기 불안에 대한 어머니의 과잉보호의 영향(Parker, 1983; Waldron, Shrier, Stone & Tobin, 1975) 등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특정한 환경적 맥락들이 특정한 내재화 문제들과 관련됨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발달 선상에서 발생하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특정한 환경적 맥락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지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발달정신병리적인 문제들은 개인 내 존재하는 독특한 차이들로 인해 그에 따른 환경적인 맥락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Steinberg & Avenevoli, 2000).

한편, 청소년들이 겪는 주요 내재화 문제¹⁾는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신장애의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발현되거나 최고조를 이루는 시기에 있어서 서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Compas & Oppedisano, 2000; Kruger, Caspi, Moffitt & Silva, 1998), 청소년기에는 두 가지 이상의 내재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McClellan & Werry, 2000; McGee et al., 1990; Rohde, Lewinsohn & Seeley, 1991). 예를 들면, 불안과 우울을 동시에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그에 따른 정신장애에 포함될 위험이 단일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등과 같이 정신과적 질병 이외의 영역에서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Compas & Oppedisano, 2000). 또한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는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정서 문제와 강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McLaughlin, 2008; Pine, Cohen, Gurley, Brook & Ma, 1998).

1)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는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고통을 억제함으로써 야기되는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증상으로써 우울, 불안, 위축 등 지나친 자기통제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들을 말한다(Achenbach & Edelbrock, 1991; 양혜원, 전명희, 2001: 130에서 재인용).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대한 발달적 접근 중에 한 가지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들이 그 시기에 행동에서의 상당한 변화나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라는 전제 하에 그것들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최근의 경험 등과 연결되어 등장하게 된다는 시각이다 (Grabber & Sontag, 2009).²⁾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대해 발달적 관점을 적용하는 논의의 장점은 발달에 있어서 개인 간의 차이에 초점을 둘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왜 어떤 청소년들은 내재화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지 그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된다.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심리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적 환경들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특정시점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내재화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권정아, 2002; 백진옥, 염시창, 2007; 윤혜미, 박병금, 2005; 최은경, 오수성, 2007; 황혜원, 2007; Blome-Lake, 2007)이다. 둘째는 청소년들의 내재화 문제가 갖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재화 문제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러한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김재철, 최진영, 2010; 서미정, 2008; 조정아, 2009; 좌현숙, 2010; 좌현숙, 오승환, 2011; Scaramella, Conger & Simons, 1999)가 수행되어 왔다. 셋째는 내재화 문제에 대한 시간에 따른 청소년 개인간 변화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유형을 확인하고, 이를 구분케 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김세원, 2010; 오영진, 2010; 최정아, 2012; Ashman, Cawon & Panagiotides, 2008)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맥락요인들이 내재화 문제나 그것의 시간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기본적으로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 자체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이론적 논의가 풍부하지 못하다.³⁾ 둘째,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환경적

2) 또 다른 접근은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가 청소년기 이전에 존재했던 개인적 특성들에 의존한다는 시각이다(Bandura, 1964). 따라서 어떤 청소년들은 그들이 겪게 되는 도전들이 청소년기 이전에 존재했던 개인 특성들을 악화시키거나 두드러지게 만들고, 그것들이 축적되어 이전의 개인 특성들이 취약성으로 변화되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내재화 문제가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Ingram & Luxton, 2005).

맥락이 다양한 형태로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맥락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재화 문제의 발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빈곤은 그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환경적 맥락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문경숙, 김종백, 2010; Odgers et al., 2012). 빈곤한 아동·청소년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위험에도 동시에 노출되어 있어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관심이 요구되며(주석진 외, 2013), 심리적 불안과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의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tzpatrick, Piko, Wright & LaGory, 2005). 또한 청소년기 내재화문제의 변화에 대한 빈곤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기능수행의 정상 범위 내에서 내재화 문제들에 대한 빈곤의 일반적인 영향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abber & Sontag, 2009). 반면에 국내에서 빈곤과 청소년기의 발달적 결과물 특히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 힘든 국내 현실 때문에 대다수 기존 연구들은 빈곤한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어 수행되었다. 소수의 연구들만이 빈곤이 아동의 다양한 발달영역 중 사회·정서적 발달을 포함한 다양한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바가 있으나(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이 경우도 아동기에 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재화 문제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은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빈곤과 그 지속기간이 그들이 겪는 내재화 문제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발달궤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빈곤지위와 영구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빈곤요인의 변화양상은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대해 발달맥락주의라는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에는 좌현숙(2010)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발달에 관한 맥락주의적 관점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재화 문제 자체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II. 문헌검토

1. 빈곤과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청소년기 발달과 관련된 기본 전제 중에 하나는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 전에 거치는 전환기라는 점이다. 그리고 청소년기 관련 연구들은 그들의 경험들을 정의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형성케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Brooks-Gunn, Graber & Paikoff, 1994; Elder, 1985; Lerner et al., 1996; Pickles & Rutter, 1991). 전환적 시기인 청소년기에 대한 발달적 접근의 핵심은 청소년 개인의 발달적 과정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것이다. 주요 설명요인에는 청소년기 이전의 발달 양상, 이 시기에서의 개인의 경험과 환경적 맥락 등이 있다(Graber, Brooks-Gunn & Petersen, 1996). 따라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빈곤이 그들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환기인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개별적 경험의 양상과 그러한 경험에 미치는 환경적 맥락을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발달 모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특성을 갖는다(Graber & Brooks-Gunn, 1996). 하나는 청소년의 행동상의 변화와 적응에 있어서 개인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발달적 변화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생 주기에 걸친 발달에 적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혹은 교류적 접근이다. 이 접근에서는 청소년기라는 특정한 전환기나 경험들에 대해 이 시기에서의 행동적 변화와 적응을 포함하는 발달적 변화에 초점을 둔다. 발달적 접근의 특성을 기반으로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에는 두 가지 정도가 제시될 수 있다(Graber & Sontag, 2009). 하나는 소질-스트레스 모델(diathesis-stress model)이다(Ingram & Luxton, 2005; Rosenthal, 1970). 이 모델은 청소년의 생물학적·유전적·생리학적·인지적 그리고 인격 관련 요인들을 포함하는 소질 혹은 취약성(Sigelman & Rider, 2009)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를 둘러싼 부정적인 환경적 맥락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의 발달을 설명한다(Ingram & Luxton, 2005). 특히 양자 간의 동시적 영향뿐만 아니라 관계의 양상 혹은 상호작용이 시간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내재화 문제를 포함하는 정신병리적인

문제의 발생 및 변화를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 취약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이 영구임대주택에서의 거주하거나 빈곤과 관련된 지위의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과 접하게 될 때에 그들이 겪는 내재화 문제는 점차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

또 다른 모델은 누적적 사건 모델(cumulative events model)이다(Petersen, Sarigiani & Kennedy, 1991; Simmons & Blyth, 1987). 이 모델에서는 개인이 누적적으로나 동시에 청소년기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생애 사건이나 전환적 사건 등을 경험할 때에 그러한 사건들의 집결을 경험함으로써 인해 청소년들은 좀 더 부정적인 행동상의 그리고 정서적인 결과들을 갖게 됨을 주장한다. 주요 누적적 사건들에는 또래 집단, 우정, 부모 간의 관계, 그리고 학교의 요구 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성 사건들의 증가가 포함된다(Graber & Brooks-Gun, 1996).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성 사건의 경험과 타이밍 등과 같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생애사건의 변화에 대한 누적 정도가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의 예측에 있어서 주요 관심이 된다(Graber & Sontag, 2009). 따라서 청소년들이 영구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누적적으로 길어지거나 빈곤과 관련된 지위의 부정적인 변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성 사건의 경험이 그들이 겪는 내재화 문제의 예측의 주요 요인이 된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

2. 청소년기 빈곤과 내재화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빈곤한 성인들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 역시 기본적 욕구나 그 이상의 것을 가난으로 인해 충족하지 못하게 될 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Wadsworth & Compas, 2002). 그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이 처한 빈곤이라는 환경적 맥락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 하고 사기가 떨어져서 결국 통제력이 저하되어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ger, Conger, Matthews & Elder, 1999). 경험적으로도 경제적 압박과 부모의 실업과 같은 빈곤요인은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의 주요

예측 요인들 중에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1994; McLoyd, Jayantne, Ceballo & Borquez, 1994). 나아가 청소년 자신이 처한 가족의 처한 상황이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ger et al, 1999).

청소년기 빈곤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빈곤은 그들의 삶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불안과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adsworth et al., 2008). 둘째,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누적되어 그들의 삶에 만성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포함하는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고(Wadsworth et al., 2008), 결국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어렵게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Wickrama, Conger & Abraham, 2005) 청소년기 이후의 삶에도 그것들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Sapolsky, 2004).

청소년기 빈곤과 관련된 또 다른 요인은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와의 취약성이다. 지역사회의 취약성은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의 부정적인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ttar, Guerra & Tolan, 1994). 특히, 우리나라의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빈곤하고 열악한 지역사회에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사회심리적 부적응 및 행동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Eamon, 2001). 따라서 청소년기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 경험은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를 포함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McLeod & Shanahan, 1993).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지역의 경우 빈곤한 환경으로 인해 동반되는 학대나 부모갈등과 같은 위험요인들에 또한 노출될 수 있으므로 빈곤지위와 함께 빈곤과 관련된 요인으로 간주하고자 한다(박현선, 2008). 또한 장기적 또는 연속적인 빈곤 환경을 경험할수록 발달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김광혁, 2010; Leventhal & Brooks-Gunn, 2000), 영구임대주택 지역에 거주한 경험의 누적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빈곤지위와 함께 이상의 두 가지 빈곤요인들과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와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로 서울아동패널연구(Seoul Panel Study of Child: SPSC)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과 독립변수는 5~8차년도 원자료를 이용하였고, 통제변수들은 5차년도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연도별 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수와 표본유지율은 표 1과 같다. 1차 연도인 2004년에 1,785명의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5차 연도인 2008년에는 1차 연도의 사례 중 1,438사례가 조사되었으며 표본유지율이 80.6%였다. 이후 8차 연도에는 1,339사례가 조사되었으며, 표본유지율은 75.0%였다. 본 연구의 모든 조사는 청소년과 그 부모로부터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이루어졌으며, 서울아동패널연구단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 IRB)의 심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표본유지율

구분	5차(2008) 중2	6차(2009) 중3	7차(2010) 고1	8차(2011) 고2
사례수	1,438명	1,409명	1,368명	1,339명
표본유지율	80.6%	78.9%	76.6%	75.0%

2. 주요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4년간의 내재화 문제의 변화다. 내재화 문제는 우울·불안과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우울·불안은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에서 ‘외롭다고 불평한다’,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걱정이 많다’

등의 13문항(3점 척도)으로 측정하였으며,⁴⁾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불안의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에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 등의 9문항(3점 척도)으로 측정하였으며,⁵⁾ 점수가 높을수록 위축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우울·불안과 연도별 문항 간 신뢰도는 각각 .87, .86, .86, .87이며, 사회적 위축의 연도별 문항 간 신뢰도는 각각 .80, .83, .81, .82이다. 내재화 문제는 우울·불안과 사회적 위축 점수의 평균값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청소년기 빈곤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거주기간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각각의 시점에서 주거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중 영구임대주택은 1, 그 외 나머지 주거형태(자가, 전세, 월세, 친척집, 기타)는 0으로 코딩하였다. 이후 네 시점 동안의 값을 더해 최소 0으로부터 4까지의 구간을 형성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구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청소년기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첫 해인 중 2 시기와 마지막 해인 고 2 시기에 표본 가구의 욕구소득비를 산출하였다. 첫 해인 중 2 시기와 마지막 년도인 고 2 시기에 욕구소득비 값이 모두 1이상이었던 가구를 비빈곤 가구로 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각각 빈곤지속, 빈곤진입, 빈곤탈피의 여부를 확인하여 더미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⁶⁾

4) 그밖에 우울·불안 척도는 ‘잘 운다’,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생각한다’,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해한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의 문항들로 구성된다.

5) 그밖에 사회적 위축 척도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수줍거나 소심하다’, ‘명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자주 뽀루통해진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진다’, ‘위축되서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의 문항들로 구성된다.

6) 지속빈곤은 중2 시기와 고2 시기의 욕구소득비가 모두 1미만인 경우를 의미하고, 빈곤진입은 중2 시기에는 욕구소득비가 1이상이었지만 고2 시기에는 그 값이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빈곤탈피는 중2 시기에는 욕구소득비가 1 미만이었으나 고2 시기에는 그 값이 1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3)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경험, 부모지도감독, 친구특성, 학교 유대감 등이 분석에 투입되었다(좌현숙, 2010; 이주리, 2008; Archibald, Graver & Brooks-Gunn, 1999; Hogue & Steinberg, 1995).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을 확인하고 빈곤 요인들이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반복측정된 내재화 문제 변수만을 포함한 모형의 발달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무조건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후 무조건 모형의 모형적합도를 판단하여 양호하게 나타나면 개인간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한 후 공변량 변수들을 투입하여 조건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통계량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esidual),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반복측정시 발생한 결측치 처리를 위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였는데,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거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listwise 또는 pairwise보다 정확하게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Arbuckle,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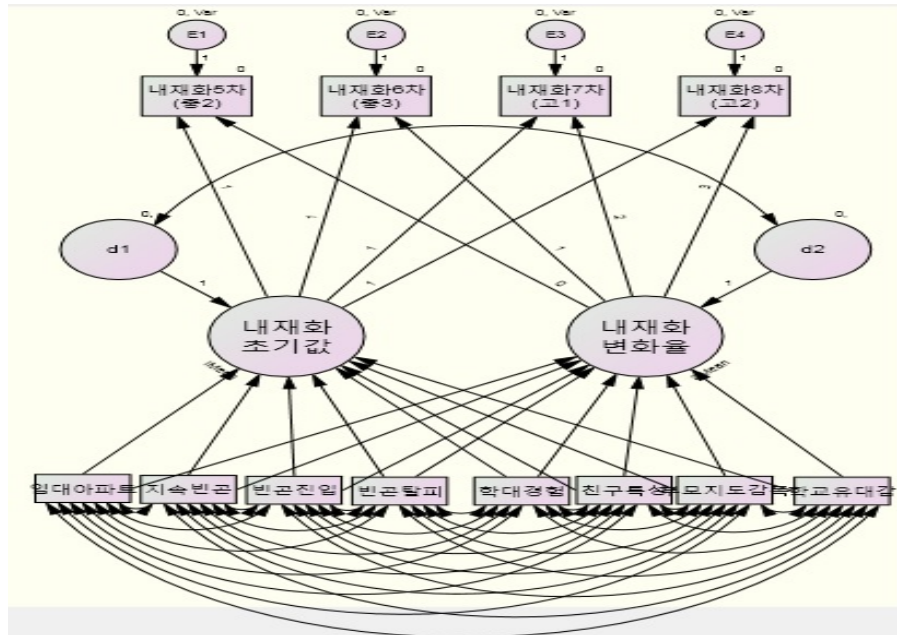


그림 6.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다. 중 2에서 고 2에 이르는 4년 동안 내재화 문제의 평균값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 2 시점에서 매년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학년이 증가할수록 그 증가폭은 미세하게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정의와 기술통계치

변수명		평균(SD)
내재화문제	중2	1.3044(.2977)
	중3	1.3247(.3107)
	고1	1.3436(.3182)
	고2	1.3616(.3241)
임대아파트거주기간		.46(1.118)
변수명		빈도(%)
빈곤지위	지속빈곤	40(4.4)
	빈곤진입	29(3.2)
	빈곤탈피	37(4.1)
	비빈곤	802(88.3)
	합계	908(100)

영구임대아파트에서의 평균 거주기간은 .46(표준편차=1.118)으로 나타났고, 빈곤지위와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비빈곤의 경우 802명으로 전체의 88.3%로 나타났다. 지속빈곤에 해당하는 경우는 40명(4.4%)이었으며, 빈곤진입과 빈곤탈피는 각각 29명(3.2%)과 37명(4.1%)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발달궤적 분석

중 2에서 고 2 시기에 이르는 동안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여 발달궤적을 추정하였다(김재철, 최지영, 2010; Meredith & Tisak, 1990). 이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chi^2=22.712(df=8, p=.004)$, CFI=.991, IFI=.961, RMSEA=.045로 대체로 양호하였다.

표 3에는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평균 및 변량에 대한 추정치가 제시되었다.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 평균은 1.305($p<.001$), 변량은 .059($p<.005$)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했다. 이는 내재화 문제가 처음 측정된 시점인 중 2 때에 내재화 문제의 평균값이 1.305이며 이 때 내재화 문제의 수준은 청소년들 사이

에서 각각 유의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의 무조건모형

모수	평균(표준오차)	변량(표준오차)
초기값(intercept)	1.305(.010)***	.059(.005)***
변화율(slope)	.019(.003)**	.003(.001)***
초기값-변화율의 공변량	-.002(.001) ⁺	-

*** $p < .001$, ** $p < .01$, * $p < .05$, + $p < .1$

내재화 문제 변화율의 평균은 .019($p < .01$)로 나타나 중학교 2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이르는 4년 동안 내재화 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재화 문제 변화율의 변량은 .003($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재화 문제는 변화를 보이는데 그 변화의 속도가 개인 간에 많은 차이가 있어 어떤 청소년은 급격히 증가하고 일부 청소년은 느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내재화된 문제의 초기값과 변화율 간의 공변량의 추정치는 -.002으로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한계적으로(marginally) 유의하였다. 이는 최초 측정시점에서 내재화 문제의 평균값이 높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재화 문제의 증가속도가 완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내재화된 문제에 대한 무조건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이 대부분 수용할만한 범위에 있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편이고, 개인 간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조건모형으로 이행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7) 이는 초기시점에서 내재화 문제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눈 후 2,3,4차 시점에서의 내재화 문제 평균값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분석결과 초기시점인 중2 시기에 내재화 문제가 낮았던 집단은 이후 세 시점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내재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최초 시점인 중2 시기에서 이미 내재화 문제 평균값이 높으므로 그 증가속도가 완만할 수밖에 없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로 볼 수 있다(좌현숙, 변귀연, 2010).

3.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학교 2학년 시기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내재화 문제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예측요인을 포함한 조건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chi^2=34.990(df=24, p=.069)$, CFI=.994, IFI=.994, RMSEA=.022로 양호하였다. 청소년기 빈곤요인을 5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임대아파트 거주기간과 5차년도와 8차년도의 욕구소득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지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청소년기 빈곤과 내재화 문제 발달궤적 간의 관계

초기값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빈곤요인	임대아파트거주기간	0.16(.009)*	.071
	지속빈곤	.096(.048)*	.081
	빈곤진입	-.066(.053)	-.048
	빈곤탈피	-.001(.017)	-.019
통제변수	학대경험	.241(.025)***	.374
	부모지도감독	-.005(.014)	-.013
	친구특성	-.033(.026)	-.049
	학교유대감	-.053(.027)*	-.075
변화율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빈곤요인	임대아파트거주기간	.001(.003)	.023
	지속빈곤	-.008(.017)	-.029
	빈곤진입	.004(.019)	.012
	빈곤탈피	-.001(.017)	-.002
통제변수	학대경험	-.011(.009)	-.078
	부모지도감독	.000(.005)	-.003
	친구특성	-.013(.009)	-.085
	학교유대감	.006(.010)	.039

*** $p<.001$, ** $p<.01$, * $p<.05$, + $p<.1$

청소년기 빈곤요인이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 요인들에 유의하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임대아파트 거주기간은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에 한계적으로

(marginally)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기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긴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기인 중학교 2학년 때에 그들이 겪는 내재화 문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빈곤지위 중에서는 지속빈곤만이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속적으로 빈곤한 청소년은 비빈곤한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2 시기와 고2 시기 모두 빈곤하였던 청소년은 두 시기 모두 빈곤하지 않았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인 중2 시기의 내재화 문제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 통제요인들 중에서는 학대 경험과 학교유대감이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이 높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 유대감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 2시기에 학교에 대한 유대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내재화 문제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청소년기 빈곤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변화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증적으로 유의하게 개인별 차이를 가지면서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인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4년 동안 내재화 문제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며 그러한 변화에 청소년기에 겪은 빈곤 요인들의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는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수행되었던 많은 연구들과 달리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맥락 요인의 변화 자체가 내재화 문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는 선형적인 궤적을 가지며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내재화 발달궤적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김재철, 최지영, 2010). 따라서 청소년기 외현화된 문제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내재화 문제에 대해 관련 당사자의 적극적인 발견과 개입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최초 측정시점인 중 2시기에 내재화 문제의 수준은 개인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화의 속도에 있어서도 개인 간에 많은 차이가 있어 어떤 청소년은 급격히 증가하고 일부 청소년은 느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와 같은 발달적 문제들에 관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Graber & Sontag, 2009). 또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내재화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미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는데 기여한다(좌현숙, 변귀연, 2010).

셋째,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 요인에는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최초 측정시점인 중 2 시기에 빈곤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 2 시기에도 빈곤한 지속 빈곤 청소년의 경우 두 시점 모두 비빈곤한 청소년에 비해 중 2 시기의 내재화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빈곤과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관해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특히, 영구 임대주택에서의 거주는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진원,

2007), 청소년을 포함한 거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Taylor, 199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지속적인 빈곤에 놓인 아동일수록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많이 보인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구인회 외, 2009; Duncan & Brooks-Gun, 1997; McLeod & Wolfe, 1995).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에 경험한 빈곤이 아동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빈곤 요인들이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의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과 빈곤 지위의 변화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증가속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초기부터 내재화 문제의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이고 증가하는 정도가 크지 않아 변화율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청소년이 직면하는 빈곤의 정도로서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길거나 지속적으로 빈곤한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짧거나 빈곤하지 않은 청소년과는 빈곤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길거나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영구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짧거나 비빈곤한 가구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인 중 2시기의 내재화 문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이상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해 요약하고 논의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와 향후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할 후속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빈곤의 양상을 크게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과 초기인 중 2 시기에서의 빈곤지위와 마지막 시기인 고 2 시기에

8) 부연하면, 빈곤한 청소년들은 비빈곤한 청소년에 비해 가구구성원의 형태나 근로능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더라도 영구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여부나 빈곤지위가 변화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거나, 빈곤 청소년 가구가 겪는 빈곤의 정도가 비빈곤한 가구보다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더 심각하게 빈곤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빈곤요인들의 변화가 내재화 문제의 변화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의 빈곤 지위를 비교한 후 두 시기의 빈곤 지위의 변화가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겪는 내재화 문제가 현실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경험적인 증거를 보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빈곤요인이 상대적으로 초기인 중 2 시기의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의 변화를 즉, 안정적인 증가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빈곤요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충하여 내재화 문제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요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에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빈곤 요인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대한 빈곤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함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삶의 통제력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보거나(Conger et al., 1999), 내재화된 문제들에 대한 압박이나 가족 갈등 등의 매개효과 정도를 확인하는 것(Wadsworth, Raviv, Compas & Connor-Smith, 2005)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수집 시기는 2008년부터 2011년이다. 이는 현재를 기준으로 다소 경과한 시기이므로 그 점은 패널데이터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의 발달적 결과물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10년 동안 추적조사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된 빈곤 요인의 분류에 포함된 청소년의 절대적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역시 패널데이터 상의 한계가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빈곤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대한 종단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1(1), 57-79.
- 김광혁 (2010).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 빈곤의 기간 및 시기, 정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1), 5-31.
- 김재철, 최지영 (2010).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및 내면화된 문제행동의 개인별 변화에 대한 친한 친구 관련 변수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1), 123-147.
- 김진원 (2007). **빈곤 청소년의 하위 계급 형성과정: 사회적 고립과 빈곤 재생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정아 (2002). **아내 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경숙, 김중백 (2010). 가정 경제의 변화에 대한 지각과 중간체계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39-56.
- 박현선(2008). 빈곤지위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빈곤대리변수와 빈곤 동반 위험요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6, 113-137.
-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58(2), 303-330.
- 백진옥, 염시창 (2007). 청소년의 자기에 성향과 내재화·외현화 문제의 관계. **교육연구**, 30, 65-88.
- 서미정 (2008). 초기 청소년의 내재화 행동문제 변화에 대한 성별 및 학업성취감의 영향력 검증: 우울/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4), 115-138.
- 양혜원, 전명희 (2001). 아내폭력 노출이 자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사회복지연구**, 6-7, 127-152.
- 윤혜미, 박병금 (2005).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3), 133-164.
- 이주리 (2008).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초등학교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의 발달 궤적. **아동과 권리**, 12(4), 503-523.
- 조정아 (2009).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우울 변화에 관한 종단연구: 변화경향과 개

- 인차에 대한 성별 · 부모 · 또래 · 교사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3), 167-192.
- 주석진, 조성심, 라미영, 방진희, 엄경남, 이종익 외 (2013). **학교사회복지론**. 경기: 양서원.
- 좌현숙 (2010). 청소년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발달-맥락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청소년학연구**, 17(10), 105-133.
- 좌현숙, 변귀연 (2010).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과정에서 내재화 문제의 변화 양상과 예측요인. **학교사회복지**, 19, 113-140.
- 좌현숙, 오승환 (2011). 내재화문제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요인에 대한 성별차이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3(4), 119-147.
- 최은경, 오수성 (2007). 보육시설 청소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행동문제: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129-145.
- 황혜원 (2007).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관련요인. **한국사회과학연구**, 29(1), 1-16.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 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Archibald, A. B., Graver, J. A., & Brooks-Gunn, J. (1999). Associations among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pubertal growth, dieting and body image in young adolescent girls: A short term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9, 451-461.
- Attar, B., Guerra, N., & Tolan, P. (1994). Neighborhood disadvantage,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s in urb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4), 391-400.
- Bandura, A. (1964). The stormy decade: Fact or fiction?. *Psychology in the Schools*, 1, 224-231.
- Blome-Lake, T. L. (2007). Predicting internalizing problems in at-risk children and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pella University.
- Brooks-Gunn, J., Graber, J. A., & Paikoff, R. L. (1994). Studying links between

- hormones and negative affect: Models and measur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 469-486.
- Compas, B. E., & Oppedisano, G. (2000). Mixed anxiety/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A. J. Sameroff, M. Lewis, & S. M. Miller(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2nd ed., pp.531-548). New York: Plenum Press.
- Conger, R. D., Conger, K. J., Matthew, L. S., & Elder, G. H. Jr. (1999). Pathways of economic influence on adolescent adjust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 519-561.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Elder, G. H. (1985).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In G. H. Elder, Jr.(Ed.),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pp.23-49).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Eamon, M. K. (2001).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 ecological systems analysis. *Social Work*, 46(3), 256-266.
- Fitzpatrick, K. M., Piko, B. F., Wright, D. R., & LaGory, D. R. (2005). Depressive symptomatology, exposure to violence, and the role of social capital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5(2), 262-274.
- Graber, J. A., & Brooks-Gunn, J. (1996). Transitions and turning points: Navigating the passage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2, 768-776.
- Graber, J. A., Brooks-Gunn, J., & Petersen, A. C. (1996). Adolescent transitions in context. In J. A. Graber, J. Brooks-Gunn, & A. C. Petersen(Eds.), *Transitions through adolescence: Interpersonal domains and context*(pp.369-383). Mahwah, NJ: Erlbaum.
- Grabber, J. A., & Sontag, L. M. (2009). Internalizing problems during adolescence.

- In R. M. Lerner, & L. Steinberg(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642-682). John Wiley & Sons, Inc.
- Hogue, A., & Steinberg, L. (1995). Homophily of internalizing distress in adolescent peer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31, 897-906.
- Ingram, R. E., & Luxton, D. D. (2005). Vulnerability-stress models. In B. L. Hankin, & J. Abela(Eds.),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Stress-vulnerability perspectives*(pp.32-46). New York: Sage.
- Kruger, R. F., Caspi, A., Moffitt, T. E., & Silva, P. A. (1998). The structure and stability of common mental disorders(DSM-III-R): A longitudinal-epidemiologic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 216-227.
- Lerner, R. M., Lerner, J. V., von Eye, A., Ostrum, C. W., Nitz, K., Talwar-Soni, R, et al. (1996).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across the transition of early adolescence: A developmental contextual perspective. In J. A. Graber, J. Brooks-Gunn, & A. C. Petersen(Eds.), *Transitions through adolescence: Interpersonal domains and context*(pp.3-22). Mahwah, NJ: Erlbaum.
- Leventhal, T., & Brooks-Gunn, J. (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 309-337.
- McClellan, J. M., & Werry, J. S.(Eds.). (2000). Introduction. [Special Section: Research psychiatric diagnostic interview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19-27.
- McGee, R., Fehan, M., Williams, S., Patridge, F., Silva, P. A., & Kelly, J. (1990). DSM-III disorders in a large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611-619.
- McLaughlin, K. A. (2008). *A public health approach ro the study and prevention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anxie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 McLeod, J. D., & Shanahan, M. J.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351-366.

- McLoyd, V. C., Jayantne, T. E., Ceballo, R., & Borquez, J. (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f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5, 562-589.
- Meredith, W., & Tisak, J. (1990). Latent curve analysis. *Psychometrika*, 55(1), 107-122.
- Odgers, C. L., Caspi, A., Russell, M. A., Sampson, R. J., Arseneault, L., & Moffitt, T. E. (2012). Supportive parenting mediates neighborhood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from age 5-12. *Development and Psychology*, 24(3), 705-721.
- Petersen, A. C., Sarigiani, P. A., & Kennedy, R. E. (1991). Adolescent depression: Why more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247-271.
- Pine, D. S., Cohen, P., Gurley, D., Brook, J., & Ma, Y. (1998). The risk for early adulthood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in adolescents with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5, 56-64.
- Pickles, A., & Rutter, M. (1991). Statistical and conceptual models of 'turning points' in developmental processes. In D. Magnusson, L. R. Bergman, G. Rudinger, & B. Torestad(Eds.), *Problems and methods in longitudinal research: Stability and change*(pp.133-165).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hde, P., Lewinsohn, P. M., & Seeley, J. R. (1991). The comorbidity of unipolar depression: II. Comorbidity with other mental disorders in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214-222.
- Sapolsky, R. (2004). Stress and cognition. In M. S. Gazzaniga(Ed.), *The cognitive neurosciences*(3rd ed., pp.1031-1042). Cambridge, MA: MIT Press.
- Scaramella, S. V., Conger, R. D., & Simons, R. L. (1999). Parental protective and gender-specific increase in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Research and Adolescence*, 9(2), 111-141.
- Sigelman, C. K., & Rider, E. A. (2009).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Life-span*

- human development*(6th ed., pp. 468-495). Belmont, CA: Wadsworth Cengage Learning.
- Taylor, M. (1998). Combating the social exclusion of housing estates. *Housing Studies*, 13(6), 819-832.
- Simmons, R. G., & Blyth, D. A. (1987). *Moving into adolescence: The impact of pubertal change and school context*. New York: Aldine.
- Wadsworth, M. E., & Compas, B. E. (2002). Coping with family conflict and economic strain: The adolescent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2(2), 243-274.
- Wadsworth, M. E., Raviv, T., Compas, B. E., & Connor-Smith, J. K. (2005). Parent and adolescent response to poverty-related stress: Tests of mediated and moderated coping model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4, 283-298.
- Wadsworth, M. E., Raviv, T., Reinhard, C., Wolf, B., Santiago, C., & Einhorn, L. (2008). An indirect effects model of the association between poverty and child functioning: The role of children's poverty-related stres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3(2-3), 56-185.
- Wickrama, K., Conger, R., & Abraham, W. (2005). Early adversity and later health: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dversity through mental disorder and physical illness.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0B(2, Special Issue), 125-129.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the internalization of problems in adolescence

Min, Wonhong* · Lee, Bongjoo**

The internalization of problems, when severe, is connected to various mental disorders and is an important developmental process which can influence adulthood. Although there have been previous studies which have considered the influences of various environmental contexts regarding in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there have been few studies which have examined the changes of internalizing problems to the changes of environmental contexts over time. In this regard,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changes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problems due to the factors related to poverty that are representative of negative environmental contexts. Latent Growth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4 year (8th to 11th grades) longitudinal data from the Seoul Child Panel Study. The study findings showed that a level of internalizing problems has increased across time. Adolescents who have lived longer in public housing and were poor in both periods i.e. 8th and 11th grades relative to not being poor in both of them have higher scores in internalizing problems at the 8th grade. In contrast, there were no significant poverty factors that influenc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sum, the results imply that adolescents with internalizing problems should be the subject of early and actively intervention and prevention programs.

Key Words: poverty in adolescence, internalizing problems, latent growth modeling

투고일: 2014. 11. 27, 심사일: 2015. 2. 3, 심사완료일: 2015. 2. 9

* Post-Doc, Researcher in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